



“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이미 만들어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다.

전자(前者)에 비해 후자(後者)가 창조적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에게는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했다. 간수를 비롯해서 그와 접촉하는 가이사의 집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세상이 내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없다고 빈둥거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에게는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환경을 타타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만들어 할 줄 아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은 평탄대로나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성숙성(Spiritual Maturity)을 갖추고 학문의 지고성(Academic Excellence)으로 훈련받은 창조적 인생관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인재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적인 인재란 또한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노예로서 배신자요, 무죄한이었던건만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선도하여 자기의 심복지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세상을 저주하고 일터를 비난하는 수가 있다.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뤄기에 세상이 내게 굽신거리고, 직장이 나를 상전 취급 대우하겠는가?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겸손히 섬기면 자연히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는 식으로 이웃과 담을 쌓아 가면 그는 이웃이 없는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악인을 선인으로, 쓸모없는 이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품위 있는 인격과 전문인이 될 때 창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 인물은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감옥이란 지겹고 불결하고 부자유하여 고생스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감옥을 기도과 묵상과 영적 교제의 장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성경 중 상당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성소(Holy Place)로 만들었다.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살 줄을 모른다면 에덴동산에 갖다 놓는다 해도 별수가 없을 것이다. 일을 만들어 하고, 친구를 만들어 사귀고, 환경을 만들어 사는 창조적 인재가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자가 되고 쓰임 받는 일꾼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일 1,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새벽기도회, 각 교육부서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314_sermon.jpg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서울교회는 담임목회자 청빙을 위한 공식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회의 고난기의 순조로운 종식과 치유와 회복과 재건의 시기를 갖춘 영성과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목회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근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권경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승민(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례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루브도, 보디소도, 린름, 수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임(말라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

■ 시 127:1-5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남편과 신부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바로 세우기는 또 다른 면으로 교회 바로 세우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라는 간절한 염원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주님 없는 세우기는 실패한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을 세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종종 '가정'(family)을 '집'(house)이라는 말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고백한 수많은 신앙고백과 지혜의 말씀들을 무시하므로 그의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 없이 세우는 것은 그것이 집이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다 실패한다고 교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간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밑그림을 그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는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 (Without the Lord frustration,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도!)를 외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기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속 4:6-7).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눈부시다 할지라도,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고자 더렵혀진 모든 것들을 정비하면서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타!', 하나님과 함께 뛰는 30주년 준비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것은 그가 항상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먼저 여쭙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기에 금식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2. 안식과 민족의 처소가 되게 하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2결)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재주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로서 합당한 곳이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기를 마냥 호못해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의 주인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과 안식과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라.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높은 임을 받으시는 교회, 우리는 쇠해지고 달아 없어져도 주님만 흥해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구현되는 길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능력도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주님이 없는 가정생활, 주님이 없는 직장생활, 주님이 없는 사업체는 외관상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밑바닥에서 팽팽 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소박해 보여도,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평온한 잠을 잡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며 그의 얼굴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기쁨을 감추시지 않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거룩한 씨가 번성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서울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히 13:15-16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7(사순절 4)
* 송 영 Doxology	1(1)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7(27)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대사 28:9-10, 19-21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서장원 목사	
* 찬 송 Hymn	347(382)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잠 16:1-2
인 도 자	인 도 자
찬 송	150(135)
기 도	다 합 께
유기찬 집사	
성 경	창 20:3-18
인 도 자	인 도 자
장학금수여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설 교 자	설 교 자
* 찬 송	250(182)
다 합 께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I부: 주화인 권사	II부: 김경두 권사
성 경	고후 1: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찬 양 대
설 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화2

설 교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 회 소 식

알 림

-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이번주 심방 일정**
1-1, 2-1, 3-1, 3-2, 11-1, 12-1, 12-2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204명	382명	1,586명	394명	1,695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복잡하고 불결한 마음이 아닌 단 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불신과 불 의와 불충으로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 복된 사람은 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기도와 생활이 깨끗하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케 도 된다.

캄캄한 밤중이라도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부정되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축복이요, 은총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